

광주시산악연맹 ‘달빛동맹 교류 탐방’ 참가



광주시산악연맹(회장 임승진)은 10일 대구 팔공산에서 열린 ‘달빛동맹 대구 팔공산·광주 무등산 교류 탐방’에 참가, 산행과 함께 김광석 거리 투어를 했다. <광주시산악연맹 제공>

전남도의회, 미화원 초청 포항 과메기 전달



전남도의회는 7일 전남도청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등을 초청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구입한 과메기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한국광기술원, 한울복지재단 김장비 지원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 임·직원은 최근 광주시 북구 성운동 한울복지재단을 찾아 ‘사랑의 김장’ 행사에 참여하고 김장비로 4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광기술원 제공>

금호1·2동 자율방범대 독거노인에 쌀 전달



광주시 서구 금호1동(대장 고기담) 금호2동(대장 조홍영) 자율방범대는 지난 8일 방범대 사무실에서 관내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쌀20kg 80포를 전달했다. <금호1동 자율방범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차영호·안숙영씨 장남 동규군 송광운·배옥주씨 장녀 연지양=16일(토) 오후 1시 그랑시아웨딩홀 2층 마리에홀.
▲임선·박순옥씨 장남 영진군(광남일보 기자) 이종운·김오단씨 차녀 혜경양=16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P&J 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김상윤(전 광주시청, 도시공사)·나선희씨 막내 민선군 박종암·오옥자씨 장녀 근영(불로초등학교)양=17일(일) 오전 11시 40분 테케이웨딩홀(구 광주교직원웨딩홀) 3층.

등창회

▲동국대 광주동문화 송년의 밤=12일(화)오후6시30분 임승정(광주일고 앞) 회비 3만원. 010-3600-6199.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김보곤) 송년

의 밤=15일 오후5시30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JS 2층 컨벤션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덱트’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가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

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앞 062-512-5788, 062-262-1542.
▲푸른길동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자립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부음

▲강종복씨 별세 강종구(순천대 교수)·세구(전남도교육청 비서관)씨 부친

상 김준태(봉선동 건강대검진관장)씨 장인상 이은하(순천비봉초 교사)·조현정(동신대 홍보팀장)씨 시부상=발인 12일(화)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062-527-1000.
▲김현정씨 별세 이준영씨 부부상=발인 13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401호 故정용진 남(남/70세) 子 : 정세원 女 : 정유리 女/婿 : 최지연/민상규, 박주은 未亡人 : 이장희 • 발 인 : 12월 12일 • 장 지 : 영락공원	402호 故박준석 남(남/61세) 子/子婦 : 박승민/윤경희, 박재홍/안영화 女/婿 : 박지연/민상규, 박주은 未亡人 : 최장미 • 발 인 : 12월 13일 • 장 지 : 영락공원
101호 故강지현 남(여/45세) 子 : 김정진, 김태문 女 : 김선아 夫喪 : 김훈영 • 발 인 : 12월 13일 • 장 지 : 담양천주교묘역	
함께 한10년. 함께 할100년 금 호 장례식장 대표이사 구 제길	
062·227·4000 www.mykumho.com	

“비판 인색한 한국 학생들, 의견 나누는 문화 확산돼야”

9년만에 광주 떠나는 미국 작가 마이클 안토니 사이먼씨

“한국에서 선생님, 화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전시회도 여는 등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앞으로 광주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11일 오전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마이클 안토니 사이먼(39·미국)씨는 화가로서, 광주에서 9년 동안 살아온 시민으로서 여러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는 화가로 2008년에 처음 광주에 와 현재까지 약 11차례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시카고에서 미대를 졸업했어요. 미술로 유명한 학교여서 한국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았죠. 한국에 가서 직접 내 안의 자아를 찾고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첫 1년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활동하다가 2011년, 대학교까지 영역을 넓혔다. 조선대학

자연 주제로 11차례 개인전 열어

광주엔 말할 수 없는 잠재력 있어

시력 나빠져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

교에서 미술학, 드로잉, 페인팅 수업을 하는 강사로 약 5년간 일했다.

“어린이들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학생들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바로 ‘비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강의시간에 각자의 작품을 걸어놓고 작품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말을 하지 않거나 의견을 말하더라도 칭찬만 하더라고요. 누군가 비판적인 말을 하면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판’은 ‘공격’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고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너파티, 와인파티 등 집에서 여는 홀파티가 일반적인 미국에 비해 한국인들은 주로 밖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한다”며 “개인적인 공간을 터놓고 지내는 방법도 여러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선전성 흑암시로 작년부터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그는 “시력저하로 인해 앞의 보이지 않는다”며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말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고, 누구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 전시회, 모임 등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랍니다.”

/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이남규 대창식품·더원푸드 대표이사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는 ㈜대창식품·더원푸드의 이남규(사진) 대표이사가 전남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62호 회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5년 동안 1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광주푸드시스템 사무실에서 ㈜대창식품·더원푸드 이남규 대표이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정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아너소사이어티 62호 신규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이남규 대표이사는 “우리들의 나눔이 사랑으로 번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어 기쁘다.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듦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5년간 전달될 성금은 저소득 세대들의 긴급한 의료비, 생계비 및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들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PEN문학상 소설 부문 서용좌 교수 선정

국제PEN 한국본부(이사장 손해일)가 주최하는 제33회 PEN문학상 소설 부문에 서용좌 소설가(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흐릿한 하늘의 해’.

수상작 ‘흐릿한 하늘의 해’는 제목처럼 우울한 우리들 이웃들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작가는 전작인 ‘표현형’에 이은 등장인물 서술자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느슨한 연관의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서용좌 작가는 ‘소설시대’로 등단했으며 이후 연작소설 ‘희미한 인(생)’, 소설집 ‘반대말·



한편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문의 010-3616-1073.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안 출신 김해자 시인 ‘아름다운 작가상’ 선정

(사)한국작가회의(이사장 최원식)가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 소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아름다운 작가상에 신안 출신 김해자 시인이 선정됐다.

‘아름다운 작가상’은 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위원장 유병목 시인)이 주관하는 상으로 젊은 작가들이 선배들에게 마음으로 헌정하는

상이다. 김해자 시인은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무화과는 없다’, ‘축제’, ‘집에 가자’ 등을 펴냈다. 백석문학상, 이육사詩문학상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중앙도서관 5층 문학창작실에서 열린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